

난치성천식 연구팀

김상현(한양의대 내과, 난치성천식 연구팀 간사)

저희 난치성천식 연구팀은 우리 학회에서 처음 연구팀을 조직한 2009년 처음 결성되어 9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식은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질환으로 많은 회원들의 주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흡입스테로이드와 기관지확장제의 개발과 임상에서 활용증가로 천식의 치료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현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천식증상과 잦은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중증 난치성천식의 기전과 효과적인 치료,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저희 연구팀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집단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즐겁고, 유익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성 당시부터 중증 천식을 연구하는 국내 주요 연구집단의 핵심 연구자들께서 참여하셨고, 초대 팀장을 맡으셨던 한양의대 내과 윤호주 교수님께서 성공적으로 모임을 이끄시고 기반을 닦아 주셨습니다. 초창기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참여가 있었으나, 연구대상 질환의 특성상 현재에는 전원 내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 연구팀과 다른 특징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4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조유숙 교수님께서 모임을 이끄면서 젊은 연구자의 참여와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 중견 연구자의 경륜과 신진 연구자의 열정이 아울러져서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초창기부터 중증 천식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학회의 지원으로 중증천식 레지스트리(Severe Asthma Registry)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의 중증천식 환자들의 임상양상과 다양한 표현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 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연구활동이 힘을 얻어 외부 연구비 수주를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레지스트리 관찰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중증천식의 실태와 unmet need의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증천식의 인식과 진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 연구팀이 지향하여야 할 연구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은 저희 연구팀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동력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학회 회원들의 가입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입 회원들에게는 재미있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참여하는 모두에게 성과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연구팀

은 중증천식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또 다른 그룹인 호흡기전문의 선생님들과 호흡기학회 연구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향후 저희 연구팀이 중증천식의 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고 보다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저희 연구팀이 성장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회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